

패키지사업본부 발족, 친환경 패키지 주도

생분해 원료 · 제품 에코피스 개발

전 세계적으로 패키징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2.5차 산업으로 국민경제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이다.

산업자원부 역시 내년도부터 패키징산업 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제반 지원 시책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패키징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기업, 정부 측면에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아래 (주)한창제지(대표이사 김종선)가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패키지

문화를 창조한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패키지 사업본부를 발족, 농수산물 패키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발전하고 있다.

‘친환경’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친환경 패키지 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주)한창제지 패키지 사업본부를 찾아 보았다.

한창제지는 국내 최초 All Pulp Board 전용 제조 설비를 도입, 고급 포장 용기 및 유아 출판, 식품 포장 용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환경유해

물질이 없는 식품 포장용 판지 생산 전문 메이커로 업계를 선도하는 등 새로운 포장용기와 패키지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국제 유수의 제지 업체이다.

1973년부터 종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한창제지는 맑은 종이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종선 대표이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종이·패키지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1월 패키지 사업본부를 발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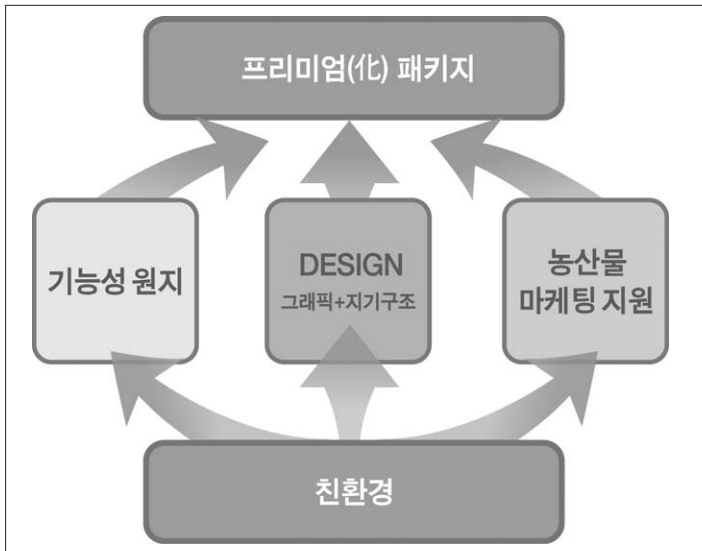
농가 번영 위한 패키지 개발

현재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특히 국내 농업은 위기감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

한창제지 관계자는 “국내 농업분야는 이제 품질로 생산성을 꾀하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전할 때”라며 “한창제지는 대한민국 농가의 번영을 위한



▲ 한창제지 패키지 BI



▲ 패키지 사업본부 운영 방향

패키지를 개발하는데 주력, 농가 혜택을 위한 패키지디자인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농가의 번영을 위한 패키지를 개발하고 농수산물 패키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한

창제지는 자연을 담은 친환경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황토종이, 녹차종이, 옥원지, 숯원지, 음이온원지, 향균원지, 한지 등의 고품격 원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패키지에 있어 디자인

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한편, 미학적인 면도 고려해 제품 퀄리티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친환경 생분해성 에코피스

현재 한창제지의 주력제품은 환경호르몬이 없는 친환경 생분해 원료/제품인 에코피스(ECO PEACE).

에코피스는 옥수수전분에서 추출한 성분을 발효시켜 젖산을 고분자한 물질인 PLA와 석유 플라스틱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를 기본으로 개발된 친환경 생분해성 신소재이다.

기존 사용되던 일반 비분해성 필름처럼 동일한 물성과 기능을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토양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깨끗하게 분해되며 인체에 무해하고 100% 자연분해 되는, 한창제지의 친환경 패키징사업본부의 노력이 담긴 제품이다.

일회용 컵, 종이 라면 컵, 일회용 롤백, 쇼핑백, 위생장갑, 쓰레기 봉투 등에 적용이 가능한 에코피스의 개발로, 한창제지는 친환경 패키지 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먹거리와 같은



▲ 환경 호르몬이 없는 친환경 생분해 원료/제품 에코피스BI

HAN CHANG



▲ 녹차 황토도시락 패키지



▲ 송월터를 패키지

직접적 패키지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을 도모하는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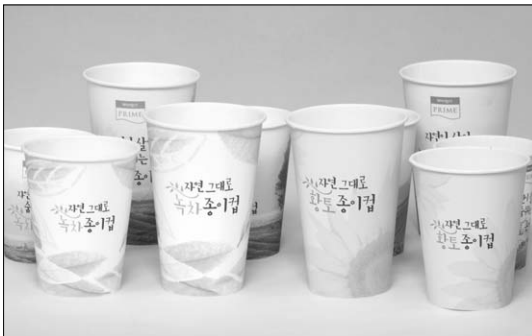
친환경 식품용기 업체 투자

한편, (주)한창제지는 친환경 패키지사업의 일환으로 지

난 해 5월에는 100% 지분을 출자해, (주)페리칸엔플러스(대표이사 구재관)를 식품용기전문 생산업체로 재탄생시키기도 했다.

1983년 고려지기로 출발한

(주)페리칸엔플러스는 현재 황토, 녹차 종이 용기/PLA 에코 피스 종이 용기 등의 '기능성 친환경 전문 용기'를 대형 할인점과 식품 관련 회사,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 녹차 황토 종이컵 패키지



▲ 제주스위트감귤 패키지



▲ 검은아저씨가게 케익 패키지



▲ 당진해나루사과 패키지

고객의 요구(Needs)를 선도하는 기능성 원지 개발에 주력하며, 차별화되고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는 한창제지.

뿐만 아니라, 견고성과 편리성 그리고 시장에 적합한 패키지 지기구조를 개발하고 각 단위별 농가의 생산품, 유통, 홍보 가격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적 생산기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곁에 다가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친환경 패키지 문화 선도

“풍요로운 삶을 위한 종이·패키지 세상 만들기”를 바탕으로 한창을 이끌고 있는 김종선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풍요로운 삶과 건강을 위해, 친환경 패키지 문화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창제지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환경을 위한 원료와 제품을 사용한 패키지가 일반화 된다면 친환경 패키지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친환경’이 세계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현재, 인류의 건강과 지구의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생분해성 원료와 제품(패키지)을 개발, 인간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주)한창제지 패키지사업본부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ko]

박초혜 기자



▲ 한창제지 협력회사

친환경 의료포장재 선두두자

품질 및 가격경쟁력 우수한 Non-PVC 필름 개발



이 상 운
(주)메디팩 대표이사

환경부는 지난 9월 중외제약, CJ, 대한약품 등 제약업체와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10월부터 의료포장재에 대해 Non-PVC 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가 관련 업체들의 요구로 유예해 놓은 상태지만 앞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함유된 PVC 수액백이나 혈액백을 사용해 수액제와 혈액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된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포함된 PVC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시험에서 생식독성이 나타나 안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번에 자발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PVC백은 곧 사라



▲ (주)메디팩의 Non-PVC 필름·bag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주)메디팩 회사 전경

질 전망이다.

PVC 제품은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이 있고 소각 때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로부터 사용제한이 강화돼 몇 년전부터 포장산업에서는 친환경 대체품들을 활발히 개발, 생산하고 있다.

의료 산업에서는 이미 중외제약 등 대부분의 수액업체들이 무독성 친환경 재질인 Non-PVC 제품으로 기존의 수액백을 대체했다.

중외제약 · CJ · 보령제약 등 국내 대부분의 수액업체들

에게 Non-PVC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 (주)메디팩(대표이사 이상운).

(주)메디팩은 친환경적 원단 생산은 물론 인쇄 · 가공의 종합설비를 이용한 의료기 포장 전문회사로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의료기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작업환경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E.O gas, Gamma Ray, Steam 멸균백(121~135%) 및 주사기 포장용 공압출 Blister Film, E.O gas 멸균용 Coating

Paper를 개발 · 생산 중이며 무독성 의료용 Non-PVC 수액백 필름 및 Non-PVC Bag을 개발하여 의료 포장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메디팩의 Non-PVC 필름 /Bag은 PVC 대체품인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다층 공압출 필름으로 121℃ 스팀 멸균이 가능하고 살균 후에도 투명성과 내 충격성이 우수하다.

Non-PVC Tube는 Polyolefine 필름과 시트에 적합한 3층 공압출 튜브로 기계적 강도와 유연성이 높고 이 제품 역시 121℃ 멸균 조건에서도 투명

MEDIPACK

도가 높다.

Hot Stamping Foil은 단면이 컬러 코팅된 PET Carrier 필름으로 물체 표면에서 열과 압력 전사도가 높다. PET, PP, PVC 등의 필름에 열전사 인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의료용, 식품용, 산업용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Easy-peel 필름은 의료용 포장지 필름으로 벗기기가 용이한 우수한 PP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팀멸균(121℃)이 가능하다.

메디팩의 벗기기가 용이한 Pouch는 E.O gas 멸균, 감마 멸균, 스팀멸균이 가능하다.

2003년 수액백용 Non-PVC 필름을 개발하면서 동종 업계의 주목을 받은 메디팩은 특히 미 식품의약국(FDA) 인증뿐 아니라 각종 서류심사는 물론 생물시험 및 용출물시험 등 42가지의 까다로운 시험항목에 모두 통과, 중국 식약청 인증까지 획득하며 수출의 활로를 개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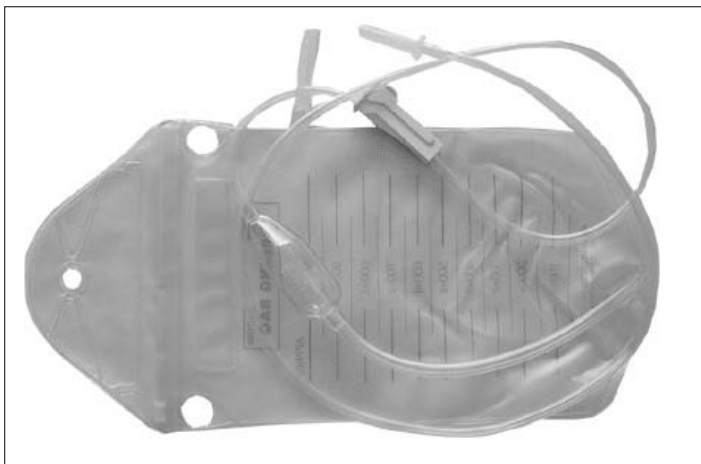
메디팩의 가장 큰 경쟁력으

로는 Film 및 Bag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의료용기 포장 전문회사로서의 오랜 경험과 기술노하우로 기술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미 20년전부터 친환경 선두기업으로 호평 받았던 메디팩은 현재 첨단기능성 필름생산과 특수인쇄, 코팅, 가공분야의 종합적인 기술 및 노하우를 토대로 각종 관련기계, 설비의 기술이전까지 엔지니어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Non-PVC 필름으로 미국 FDA, SFDA(중국식약청)인증과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확보로 해외 진출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디팩은 미국의 실드에어(Sealed Air)사와 중국 진출 협력 방안을 협상 중에 있다.

연간 60억개의 수액백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10% 정도를 Non-PVC로 대체한 상태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는 메디팩



▲ (주)메디팩의 항균 필름



▲ (주)메디팩의 레토르트 필름 및 이지필 필름

의 중국 진출 또한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팩의 기초수액제 용기는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유럽국가의 Non-PVC 소재에 비해 물리적 기능이 뛰어나고 원가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어 메디팩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Non-PVC Film 다층 구조 특수 설계기술은 설계 기술을 응용하여 적용한다면 친환경성과 우수한 물리적 성능을 필요로 하는 혈액백, 식음료 포장재, 플라스틱 소재 등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메디팩은 수액백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다.



▲ (주)메디팩의 튜브형 필름 및 공압출 필름

NON-PVC 필름 공급에 박차를 가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서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메디팩은 올해 5월 기술신용평가보증기금 평가 A+ Members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8월 제2공장(덕산산업단지) 준공 및 생산설비 도입 증설로 제2의 도약을 맞이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수액백 시장은 연간 1억개의 수액백을 소비하고 있다.

메디팩은 기존 공장에서 연간 3,000만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가공하는 제2공장에서도 연간 3,000만개를 더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수액업체들의 공급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추가 증설도 계획하는 등 메디팩의 성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속에 친환경 제품 및 포장재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환경친화적인 의료기구 포장재 개발로 단연 동종업계에서 돋이고 있는 (주)메디팩. 세계속의 기업으로 도약할 메디팩의 미래가 기대된다. [ko]

이한얼 기자